

## 檀園 金弘道の 風俗畫帖에 나타난 庶民服飾 연구

曹 五 順

國立昌原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Civil Costume in Genre of Hong-Do Kim

Oh Soon Jo

Prof., Dept. of Clothing, Changwon University

#### Abstract

As an economy approach new state of affai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hil-Hak philosophy, the Joshun society at 18th century gave common people to a chance to impress and to patronize the Arts. This social environment made an artist to drawing see and feel, this is a genre picture.

Hong Do Kim(1745-1816 or 1818) was a typical genre picturer of Joshun, his picture reflected the time truthly and honestly and described vividly a life of common people, so expressed Realism what based on the actu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o study costume of common people and their life style.

The costume in a genre picture books are summarized.

Man's basic dresses were Jugori and Baji uniformity, but based on the job or situation those had a little variation. People of a blacksmith shop wore that to enlarge sleeve of Bagi and Jugori and wore Strow Sandle exactly, in that way prepared for danger of treating hot iron.

On the side, in the summer, Soikojambangiee and Deungguri jucksam wore at grain. The majority of hair style was Minsangtoo that Manggun not to be surrounded a head.

Womam's basic dresses were Chima and Jugori, it was not to be different in compare with a woman of the aristocratic class, extremely appeal simplicity. But it was not to be of no accent on fashion even if common people, they wore a shot Dangko jugori that busts were seen below Jugori. A hair style was simple hair that her braid placed aboved a head, different with very richful hair style, Gachae that one's braid hair placed above a head, a hair style of woman of the aristocratic class and Kinuer.

Because of common people's costume are not a special thing expect for basic dress-Jugori, Baji, Chima, many historical books or articles about costume are not exist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costume of common people's life, we found that basic dresses appeared to a various types based on the job and the situation.

#### I. 서론

18세기 조선사회는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경제가 새  
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동법의 실행과 화폐

의 유통은 부유한 상인과 함께 상업자본을 형성하였  
고, 그에 따라 시민사회의 기본인 민본사상이 출현하  
게 되었다.<sup>1)</sup>

민본사상은 서민 대중층에게도 예술을 감상하고 애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이러한 사회환경은 화가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고 느낀대로의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이것이 곧 풍속화인 것이다.

풍속화는 의식주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그려냄으로써 인간의 내면성과 외면성을 모두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김홍도(1745-1816 또는 1818 추정)는 18세기의 대표적인 풍속화가로서 그의 그림은 그 시대를 진실하고 솔직하게 반영하여 당시 서민들의 생활감정과 삶의 분위기를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므로써 현실에 바탕을 둔 사실주의를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풍속화' 라는 자료를 통한 복식 연구는 그 시대인들의 생활양식과 사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혜원 신윤복(申潤福)<sup>3)4)</sup>과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인 평생도(平生圖)를 통한 연구<sup>5)6)</sup> 등이 있다. 신윤복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풍속화가로 주로 남녀의 정분이나 양반들의 기방출입을 다루고 있으며, 김홍도의 평생도는 사대부들의 청에 따라 돌잔치에서 회갑잔치에 이르는 일생의 주요한 일들을 그린 것으로 그 대상은 권력층이었다.

이렇게 선행연구의 대상이 양반이나 특정계급인 자녀가 중심이었던 반면, 본 연구대상은 서민이다. 연구자료인 김홍도의 풍속화첩이 대부분 서민들의 삶을 다룬 그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민의 복식을 당시의 생활상과 함께 분석, 고찰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자료는 25점의 풍속화첩 중, 대상이 서민이 아니거나 인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 복식의 관찰이 어려운 그림을 제외한 19점을 택하였다. 풍속화첩에 나타난 복식을 역사, 미술사, 복식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함께 병행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조선후기 풍속화가 발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단원의 풍속화첩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을 고찰하므로써 본 연구의 배경을 밝히고 둘째, 19점의 풍속화에 나타난 복식을 당시의 생활상과 함께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분석한 복식의 특징을 남녀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여기서 서민이라 함은 조선시대 사회신분의 구분인 양반, 중인, 평민, 천인<sup>7)</sup> 중 생

산노동의 주역이며 본 연구의 자료인 김홍도 풍속화첩에 주로 등장하는 평민 및 천인임을 밝혀둔다.

## II. 조선후기 풍속화의 발전배경과 단원의 풍속화첩

풍속화가 등장하였던 시기는 숙종대부터 영조대 전 반까지로 당시 조선의 사회는 급격한 정치,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사상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역동적인 조류가 나타났다. 사상계의 주도권을 쥔 노론 지식인들은 조선중화(中和)를 표방하여 문화적 자존심을 지켰다. 이들은 청을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조선이 곧 중화이며 선진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기인식이 확고하였다.

그리하여 숙종 후반이후에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조선의 자연, 인물과 풍물, 풍속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주의적 예술이 꽃피게 되었다.<sup>8)</sup>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초기 풍속화는 사실적이기는 하나 인물화에서 풍속화로 전개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영조대 후반에서 정조대에 걸친 시대는 풍속화의 전성기이자 김홍도가 활동하였던 시기이다. 사실주의와 개성주의를 지향하는 회화정신은 풍속화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며 발전하여 화과(畫科)적 위치가 확고해졌다.<sup>9)</sup>

이 시기 풍속화는 중국의 상황을 묘사한 경직도(耕織圖) 계열의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의 풍속, 풍물을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산수배경을 생략하여 풍속화의 주제를 화면의 중심에 부각시켰다. 또한 풍속화의 소재도 전 시대 이래 양반과 서민의 생활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가운데 서민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하는 장면이 보다 본격적으로 그려졌다.<sup>10)</sup>

대표적 풍속화가였던 김홍도는 화원(畫員) 출신이었다. 화원이란 조정에 고용되어 그림을 그리던 벼슬아치 화가를 말하는 것으로 종6품의 승진이 최고 한계였으며, 그것도 엄청난 출세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화원은 미관말직이 되기 쉬웠다. 그러나 김홍도는 연풍현감(延豊縣監)의 행정직을 지내기도 하였으니 명예와

출세를 다 가졌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로는 드물게 그림에 대한 수요가 있어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그 중에는 정조대왕의 어진(御眞)을 비롯한 궁정의 명에 의한 그림이 아닌 서민생활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도 상당수 끼여 있었다. 30대에 그린 풍속화는 산수나 가옥(家屋)을 배경으로 하였으나 40대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풍속화첩(국립박물관 소장)은 배경을 생략하여 풍속장면만을 부각 시키므로서 박진감 넘치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일들을 과장없이 그렸기 때문에 주로 근로하는 서민의 모습이였다. 봉건관료기관인 도화서(圖畫書)의 화원이며 음관(蔭官)으로 현감에 제수 받았던 그가 도탄 속에서 신음하던 서민을 자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양반 지배계급이 천시한 노동생활을 그려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예술적인 정열과<sup>11)</sup> 함께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풍속화첩에 나타난 복식 연구

#### 1. 기와이기

목수, 토공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무척 생동감 있다.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건 후 연합(椽檣)을 짝아 붙이고 산자를 엮은 다음 반죽을 깬 위에 기와를 이어나가는 광경이다.<sup>12)</sup>

말에서 기와를 던지는 이와 그것을 지붕 위에서 맨손으로 받아내는 이, 흙반죽덩이를 달아 올리는 이들은 걷어올린 바지에 신을 신지 않았으며 저고리는 대충 걸치거나 벗어 던져 놓고 일하기에 여념이 없다. 머리는 망건(網巾)을 두르지 않은 민상투이며 허리춤에 주머니를 차고 있다. 기둥 옆에 서서 먹줄을 늘어 뜨리고 기둥의 쏘림을 점검하고 있는 대목(大木)은 포(袍)와 저고리의 중간정도 길이가 되는 긴저고리를 입고 있다. 머리에는 망건을 두르고 있으며 바지 밑에는 행전을 치고 갓신을 신고 있다. 갓신은 양반귀족이 아닌 일반인들은 신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본 풍속화에 나타난 대목은 양반귀족이 아님에도 갓신을 신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 “보통사람은 소가죽이요, 귀한

사람은 사슴가죽”이라는 유행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발 풍속이 사치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는 양반은 집주인인 듯 하다. 그는 방관(方冠)에 중치막(中致莫)을 입고 갓신을 신고 있다. 중치막은 임진란 이후에 왕 이하 서민까지 두루 입었던 옷으로 갓은 곧고 소매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가 없으며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옆선이 트여있어 속에 입은 저고리와 바지를 볼 수 있다.<sup>13)</sup>

김홍도는 노골적으로 양반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목수, 토공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양반이 감독하는 장면을 그린 것은 양반들에 대한 그의 도전의식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 2. 주막

의식주 생활의 모습을 다룬 풍속화 중 식생활은 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주막집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 김홍도의 ‘주막’도 마찬가지로 여행중인 서민들이 간이주막 안에서 요기하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국자로 막걸리를 떠내고 있는 주모는 평범한 엮은 머리에 기본적인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있다. 저고리의 길이와 품, 그리고 소매통은 여유가 있어 활동하기에 편안해 보이며 소매끝통의 색상이 다르다. 갓은 당코갓으로 조선중기에는 반목판갓이, 중 후기에서 말기까지는 반목판갓과 당코갓이 많으며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는 동그래갓으로 변천해 왔다는 문헌을 뒷받침하고 있다.<sup>15)</sup>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여행객은 저고리와 바지차림이다. 남자들의 주머니는 처음에 담배를 보관하거나 시의 초고 보관 등에 사용되었으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 점차 돈을 보관하는데 썼으며 남자들이 조끼를 입게 되면서부터는 여자들만이 착용하였다 한다.<sup>16)</sup> 주머니는 그 모양에 따라 두루주머니, 귀불주머니, 황낭, 궁낭 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주머니는 입구에 잔주름을 잡고 좌우 양쪽에 끈 2개를 꿰어 단 두루주머니라 할 수 있다.

초림(草笠)을 쓴 여행객은 행전을 찢으며 짚신을 신고 소창의(小窓衣)를 입은 듯 하다. 초림은 누른 빛갈



<그림 1> 기와이기



<그림 2> 주막



<그림 3> 빨래터

의 극히 가는 풀로 돛자리 겉돛이 걸쳐 만든 것의 일종이며 흑림으로 이행하는 중간기에 속하는 것이다. 그 형태는 패랭이(平涼子)와 비슷하나 대우(갓모자)와 양태가 보다 뚜렷하고 패랭이의 양태가 아래로 약간 굽은데 비하여 초림은 위로 버드려져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초림의 죽이 고운 것은 양반이, 굽은 것은 상인이 쓰도록 구별하였고 흑림(黑笠)이 나타나면서 상민의 쓰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풍속화 속의 여행객은 굽게 성긴 초림을 쓰고 있으므로 평민임을 알 수 있다.

### 3. 빨래터

화창한 봄날에 빨래터에 모여 앉아 치마를 걸어 붙이고 빨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머리를 땀고 있는 여인의 저고리는 당코깃에 소매 끝동이 다른 저고리나 다른 여인들은 소매를 걸어붙이고 있으므로 끝동과 깃의 관찰이 어렵다. 머리는 모두 두 갈래로 나누어 땀은 후 위에 얹은 형태로 기혼녀임을 알 수 있다.

저고리의 길이가 이전시대에 비해 훨씬 짧아져 가슴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조 중기를 기점으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문헌의 고찰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양반 부녀자들의 치마가 길고 폭이 넓으며 끝에 금직이나 금박을 놓은 스란치마인 것에 비해 이들의 것은 매우 소박하고 간소한 민치마였으나 치마 속에 입

은 속바지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엄마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유아의 저고리 옆선이 터져 있는 것으로, 이는 활동성을 주기 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팔다리를 걸어 붙인 채 빨래하고 있는 젊은 여인들을 몰래 훑쳐보는 이는 흑림에 도포(道袍)를 입은 양반으로 얼굴을 부채로 가리고 있다. 갓이라고도 지칭되는 흑림은 양반의 전유물이었으며 도포 위에는 슬띠인 세조대(細帶)를 매었다.

### 4. 자리짜기

돛자리를 엮고 있는 남자는 방건을 쓰고 소창의를 입고 있다. 머리에 쓴 방건은 사각모양으로 사방이 평정한 것은 각건(角巾)이라고도 하고 대개 말총으로 만들었으며 주로 양반들이 평상시에 착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리짜는 일을 하며 소창의를 입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평민임을 알 수 있다. 창의에는 대창의와 소창의 등이 있는데 대창의는 등 뒷술기를 터 모두 4폭이고 소매가 넓으나 소창의는 무가 없이 3폭으로 갈라졌으며 소매가 좁다. 따라서 본 풍속화에 나타난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은 폭의 관찰이 어려우나 소매의 폭이 좁은 것으로 보아 소창의로 추정된다.

물레를 돌려 고치에서 실을 찾고 있는 여자는 깃머리 앞부분이 제비부리 형태로 각이 진 당코깃에 소매의 배래가 매우 좁은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저고리의



<그림 4> 자리짜리



<그림 5> 벼타작



<그림 6> 대장간

길어도 짧은 편으로 치마허리가 모두 드러났고, 규칙적으로 잡힌 주름은 치마를 풍성해 보이게 하였다. 머리는 상당히 보편적인 엷은머리였으며, 앞에서 돌아앉아 글을 읽고 있는 아이는 옆선이 트인 저고리에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이렇듯 각자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서민층 가족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 당시의 생활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 5. 벼타작

벋단을 통나무 갯상에 내려치며 타작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경직도의 추수 장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열심히 타작하는 농부들의 차림은 쇠코 잠뱅이와 등거리 적삼으로, 조선시대의 여름철 노동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쇠코 잠뱅이는 조선조 남자들이 여름철 평상시에 바지 밑에 입던 속옷이었으나 노동시에 이것만을 입기도 하였다. 길이는 무릎 아래정도로 짧고 바지를 고정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묶은 후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꺾어 내린 부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 활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허리띠에는 주머니도 함께 묶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평민들에게도 주머니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에 대중 걸치거나 여며 입은 옷은 등거리 적삼으로 쇠코 잠뱅이와 함께 여름철 노동복으로 착용하였던 것이다. 등거리 적삼은 바지와 마찬가지로

저고리 밑에 받쳐입었던 것이었으며 노동복으로 입을 경우 그 모양이 약간 달랐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깃과 셔이 없이 선단만을 달아 간편하게 하였고 소매가 짧아 활동이 편하였으며, 아예 달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길이 또한 저고리보다 길어 기능적이었다. 대부분 맨발에 짚신을 신거나 신지 않았으나 드물게 버선을 신고 짚신을 신은 모습도 보인다. 머리는 민상투이거나 두건을 틀렀으며 모두들 즐거이 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벼타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는 마름으로 생각된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과는 달리 자리를 깔고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물고 있다. 중지막으로 보이는 포를 걸치고 흑립을 썼으며 바지 밑에는 행전을 치고 있다. 앞뒤로 형견을 덧댄 버선을 신고 있으며 벗어놓은 신발은 짚신이 아닌 갓신임을 알 수 있다.

## 6. 대장간

화면 중심에 풀무가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기술이 능란한 늙은 사람이 쇠모루 위에 집게로 쇠덩이를 올려놓으면 힘센 젊은이들이 그것을 메로 두들기는 활기찬 대장간의 한때를 그렸다.<sup>17)</sup> 또 한쪽에는 풀무질을 하는 총각아이와 솥물에 큰 낫을 가는 아이가 있다.

낫을 가는 아이를 제외하고 풀무를 둘러싼 이들은 모두 머리에 두건을 틀렀다. 이는 더운 대장간에서 일하므로 땀이 흐르는 것을 막고자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두건은 오늘날의 대장간이라 할 수 있는 방짜



<그림 7> 논갈이



<그림 8> 서당



<그림 9> 무동

만드는 곳에서도 착용하여 일의 능률을 도모하고 있다. 저고리와 바지를 모두 갖춰 입었고 소매와 바지길이 또한 다른 노동복과는 달리 긴 것으로 보아 뜨거운 햇볕을 다루는 대장간 일의 위험 성에 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버선을 모두 챙겨 신었다.

노동복으로서의 드물게 가운데 있는 늪은이의 저고리에 동정이 달려있다. 뒷편에서 메질을 하는 이는 정강이에 행전을 두르고 무릎아래에서 매듭을 매었다. 이는 반듯한 형견을 소매처럼 만들고 위쪽에 끈을 두 개 달아 돌려 매는 행전의 형태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 7. 논갈이

한 쌍의 소가 쟁기를 끌고 두 명의 농군이 쇠스랑으로 흙을 고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경직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무릎 정도의 짧은 길이로 된 쇠코 잠뱅이와 등거리 적삼을 입고 있다. 머리는 망건도 두르지 않은 민상투로 잔머리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모습이 사실적이면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소의 모습이나 힘을 잔뜩 주고 쟁기를 잡은 농부의 몸짓은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말해 주는 것 같다.

## 8. 서당

훈장이 학동에게 벌을 주는 글방의 한때를 그렸다. 훈장은 훌쩍거리는 학동에게 꾸짖었던 엄한 표정을

거두고 묘한 웃음을 지으며 우스갯소리 한마디쯤 던졌을 것 같다.

훈장은 콧수염과 턱수염을 짧게 기르고 머리에는 사각형태의 방건을 쓰고 있다. 소매의 폭이 매우 여유 있어 보이는 도포를 입고 술띠인 세조대를 두르고 있다. 뒷편에 있는 세 명의 학동과 꾸짖음을 당하는 아이는 모두 뺨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평범한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모습이다. 동정이 달려지 않은 긴소매 저고리와 긴바지를 입고 버선을 갖춰 신었다.

이들보다 형편이 좀 나아 보이는 앞쪽의 학동 네명은 저고리 위에 무가 없이 세 폭으로 갈라진 중치막을 입고 띠를 매었다. 학동들 중 유일하게 상투를 들고 흑립을 쓰고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는 포를 입고 있다. 옆의 학동들과 다르게 소매와 저고리 폭이 넓은 것으로 보아 도포로 생각된다.

## 9. 무동

둘러앉은 악공들의 좌고(座鼓)와 피리 등 삼현육각(三絃六角)에 맞추어 춤추는 소년의 모습을 그렸다. 이들은 천인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상 성격에 의해 다채로운 의복을 착용하였다. 맨 왼편에서 절고를 두드리고 있는 이는 중치막의 앞자락을 뒤로 매주었다. 정강이에는 행전을 치고 버선을 신었으며 허리춤에 주머니를 달고 머리에는 말뚝빙거지를 썼다. 말뚝빙거지는 갓 형태의 관모로 모부가 보통 빙거지 보다 높고

보족하며 양태가 넓다. 조선시대 가마를 매는 하인들이 주로 착용하였다.

장고와 피리를 부는 이들은 중치막을 입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으며 머리에는 흑립을 쓰고 무릎 아래 행전을 쳤다. 그 옆의 피리부는 이와 해금을 켜는 이는 창옷을 입고 그 위에 소매가 없이 양옆이 터진 전복을 입고 있다. 전복 위에 넓은 띠를 매었고 역시 정강이에 행전을 치고 버선을 신었다.

소창의인 창옷의 색은(色)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짙은색으로,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는 복색의 어둡고 밝은만을 알 수 있을 뿐 자세한 색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머리에는 말뚝방거지를 착용하고 있다. 대금을 부는 이 또한 중치막에 흑립을 쓰고 있다.

무동은 다른 이들과 색이 다른 창옷에 통이 넓은 긴 한삼을 달아 춤을 추고 있다. 유일하게 다른 색상의 행전을 치고 가볍게 올린 발끝에는 천민으로서는 신기 힘든 갓신을 신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는 수대를 매어 덩실덩실 추는 춤의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10. 점괘

두 명의 승려가 부적인 듯한 물건을 펼쳐놓고 지나가던 여인에게 목탁을 두들기며 시주를 호소하자 여인이 엽전을 꺼내며 흥미로워 하는 광경을 그린 듯 하다. 두 명의 승려가 약간은 다른 복장을 하고 있다. 머리에 송낙을 쓰고 있는 승려는 흰 가사(袈裟)를 입고 있고 고깔을 쓴 승려는 먹물들인 가사를 입고 있다. 송낙은 상고시대 변형모 형태로 우리고유의 것이며, 그 같은 형태를 소나무 겨우살이로 걸쳐 만들었다.<sup>19)</sup> 승복에는 가사, 쾌자, 장삼, 승혜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조국 말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가사는 승복 중에서 제식이 되며 쾌자나 장삼은 그 형태가 일반의 것과 통한다 할 수 있다. 보통 가사라 하면 삼의를 총칭하는 말로서 원래 괴색, 부정색, 탁색, 탁염색 등을 가리키는 범어이다. 불자 전용의 의복은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는색, 낫은색, 독특한 색으로 염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낫은색의 것을 모두 가사색이라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가사색으

로 물들인 모든 것을 의미했던 염색의 이름이 후에는 삼의의 통칭으로 쓰게 된 것이다.<sup>19)</sup> 소매통이 무척 넓은 대수포(大袖袍)의 가사는 몸통의 폭 또한 여유가 많았다. 앞쪽의 승려는 저마포제로 만든 고깔을 쓰고 먹물색을 들인 가사를 입고 있으며 갓신을 신었다.

지나가던 여인은 엽전을 꺼내기 위해 쓰고 있던 장옷을 머리에 이고 치마를 들어올려 안에 있는 주머니를 열고 있다. 끝동과 깃의 색상이 다른 반회장 저고리를 짙막하게 입었으며 밑에는 속바지와 치마를 입고 있다. 바지 밑단에는 치마 아래로 보일 것을 위해 이색천으로 덧댄 것을 볼 수 있다.<sup>20)</sup> 버선에 갓신을 신고 있으며 돈을 꺼내기 위해 길에서 치마를 걷어올리고, 옆의 소녀가 담뱃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양가집 아낙은 아닌 듯 하다. 얽은머리 위에는 소맷부리에 흰 거들지를 댄 장옷이 없혀져 있다. 같은 일행인 소녀는 여인네의 몸종인 듯 하다. 끝동이 있는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치맛자락은 바짝 치켜서 여며 속옷이 밖으로 보이도록 입었다. 이러한 형태의 치마를 거들치마라 하여 하숙배들이 입었다.

## 11. 점심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들녁에 자유롭게 앉아 점심을 먹는 장면이다. 식사중이거나 마친 일꾼들이 다양한 포즈로 앉아 있으며 돌아앉은 아낙은 점심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아기에게 젓을 물리고 있다.

경직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하는 모습이 아닌 새참 먹는 장면을 통하여 당시의 노동풍속을 그리고 있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sup>21)</sup>

날씨가 무더운지 거의가 옷을 벗거나 왼쪽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었다. 이러한 착의법은 서양에서도 흔히 있었던 방법으로 오른손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이점이 있다.

바지의 길이가 짧고 저고리의 깃이 없이 선단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름철 노동복인 쇠코잠뱅이와 등거리 적삼임을 알 수 있다. 더위를 쫓으려는 듯 부채를 들고 식사를 하고 있으며 머리는 모두 망건도 두르지 않은 민상투이다. 부채는 대나무로 엮은 자루가 있는 부들부채로 보인다. 허리춤에는 주머니를



<그림 10> 점괘



<그림 11> 점심



<그림 12> 고누놀이

달고 있으며 발은 모두 맨발이다.

아낙은 머리에 두건을 둘렀으며 저고리의 여밈을 풀어 헤치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치마는 속바지가 상당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두루치나 거들치마로 생각된다. 아낙이 저고리를 살짝 올려 젖을 물린 것이 아니라 앞가슴을 다 풀어놓은 채 수유하는 모습에서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왼쪽어깨에 끈이 걸쳐있는 것으로 보아 바지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여 활동성을 부여한 듯 하다. 이 점은 오늘날 아이들의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서스펜더를 하거나 오버롤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 12. 고누놀이

나무하러간 초등들이 잠시 쉬는 동안 고누놀이 하는 광경을 소재로 그렸다. 맨바닥에 우물고누를 그려 놓고 돌이나 나무로 만든 말을 따먹기에 여념이 없는 초등과 이를 구경하는 주변인물들, 막 나뭇짐을 해오는 초등으로 구성되었다.

머리를 땅거나 묶은 초등들은 약간 더운 듯 저고리 여밈을 풀어헤치거나 왼쪽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또는 허리에 저고리를 걸친 모습이 무척이나 여유롭게 느껴진다. 저고리의 소매길이가 손목까지 내려오고 바지의 무릎아래에는 행전을 쳤다. 이것은 숲에 나무를 하러갔을 때 주변환경으로 부터 몸을 보호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누놀이를 관전하는 이는 짚신을 모두 갖춰 신고 있으며 담뱃대를 물고 민상투에 수염을 길렀다. 나뭇꾼도 마찬가지로 긴소매 저고리에 행전을 치고 짚신을 신었다. 지게 위에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무척 편안하게 느껴진다.

## 13. 씨름

건강하고 다부진 몸매를 가진 두 사람이 승부를 겨루고 있다. 그 옆으로 무심한 목판장수, 벗어놓은 갓, 신발 등이 화면의 단조로움을 깨뜨리며 긴장된 분위기를 멋지게 조절하고 있다. 안간힘을 쓰고 안넘어가려는 이와 그를 잡아채려 아래턱에 힘을 주고 있는 상대의 모습으로 보아 씨름이 절정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상황이 불리한 자는 행전을 쳤으며, 유리한 자는 행전을 치지 않고 바지를 길게 내려 대님을 묶었다. 둘 다 버선을 신고 있으며 이들이 벗어놓은 갓신과 짚신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구경하는 이들은 신분이나 나이가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그들 중 여자는 찾아볼 수 없다. 머리를 땅은 소년들은 동정이 달리지 않은 저고리에 바지 차림이며 상투를 틀고 흑립을 쓴 이들은 대부분 중치막 차림이다. 무릎 아래로 행전을 치고 제각기 갓신이나 짚신을 신고 있다.

네 명의 구경꾼이 부채를 들고 있으며 부채는 '점심'에서 본 부들부채와는 다른 점식 형태로 신분의





<그림 13> 씨름



<그림 14> 길쌈



<그림 15> 편자박기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 구경꾼이 내려놓은 관모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말뚝 벉거지로 보인다. 씨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옛 파는데 정신이 쏠려 있는 목판장수의 저고리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이가 길다. 허리춤에 주머니를 차고 바지는 길게 입은 후 대님을 매었다.

#### 14. 길쌈

젊은 여인이 베틀에 올라 앉아 한창 베를 짜고 있는 그림이다. 그녀의 온몸과 정신이 베짜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 뒤에는 시어머니인 듯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베짜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뜨락의 저편에는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베실에 풀을 먹이고 있다.

여인네들의 상의는 품이 여유가 있고 길이가 또한 넉넉해 보이는 당코깃 저고리를 입고 있다. 베짜는 여인의 웃고름은 저고리와 색상이 다르며 그 길이와 폭은 품을 여미는데 필요한 여유정도이다. 머리는 제 머리roman 얹은 머리로 다소 흐트러진 것이 베짜기에 여념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발에는 베틀신을 신고 있다. 저편에 있는 여인은 짚신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 옆에 서있는 네 다섯살 난 아이는 긴 저고리를 입고 있어 활동량이 많은 나이에 적합해 보인다. 서민층의 아들은 이처럼 겉옷인 포가 없고 동저고리(저고리와 바지) 차림으로 그 길이가 중간형이며 활동성을 주기 위해 옆이 터져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 15. 편자박기

말굽에 징을 박고 있는 광경을 그렸다. 네 발이 묶인 채 발버둥치는 말을 상대하기가 힘든지 편자를 직접 박고 있는 이는 저고리를 벗어 던졌다. 그의 머리에 둘러진 머릿수건은 대장간의 그림에서도 보였던 것이며 편자를 박는 것으로 보아 역시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말을 데리고 온 듯한 사람은 긴저고리에 긴바지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으며 머리는 민상투이다.

#### 16. 담배쌔기

넓은 담배잎의 줄기를 추려낸 다음 작두판에 눌러서 썰어내고 있는 광경을 그렸다. 작두질을 하는 이는 저고리를 반쯤 벗어 왼쪽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약간 과장되게 보여주고 있다. 날씨가 더운듯 저고리를 벗거나 부채질을 하고 있다.

작두를 썬는 이는 망건을 두르고, 부채질을 하는 이는 탕건의 한 종류로 보이는 간소한 것을 쓰고 저고리소매는 반쯤 걷어올리고 있다. 다른 이들은 민상투이나 자세히 보면 이마에 망건을 둘러싼 자국이 눈썹과 평행하게 나있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 망건을 착용하나 더워서 잠시 두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17. 활쏘기

전복(戰服)차림의 교관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우고 있



<그림 16> 담배쌔기



<그림 17> 활쏘기



<그림 18> 우물가



<그림 19> 행상

는 그림이다. 전복은 군복의 종류로 뒤와 옆솔기가 트이고 소매가 없으며 다른 옷속에 덧 받쳐입었다. 허리에 광대(廣帶)를 두르고 행전을 찼다. 머리에는 전모(氈帽)보다는 흑립에 가까운 관모를 썼다. 활쏘기를 배우는 장정들의 저고리와 바지는 다른 그림에서의 저고리, 바지와 그 실루엣이나 느낌이 다르다. 모두 긴소매 저고리에 바지를 길게 내려 입어 대님을 두르거나 행전을 돌렸으며 상투를 올려 망건을 두른 모습이 단정해 보인다.

## 18. 우물가

우물가에서 게걸스럽게 물을 마시고 있는 남정네는 옷자락을 풀어 해치고 갓마저 벗어 손에 들고 있다. 낮술이라도 한 잔 한 듯한 모습이다.

두레박을 건넌 여인은 조선시대에 짧아진 저고리로 인해 생겨났던 가슴 가리개용 허리띠를 두르지 않아 가슴이 저고리 아래로 다 드러났다. 당코깃에 동정을 달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치마는 허리를 치켜올려 묶어 속에 입은 바지가 다 드러났다.

## 19. 행상

행상을 떠나는 부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지게에 나무통을 진 부상은 머리에 병거지를 쓰고 있는데 상투 올린 모습이 보일 정도로 낮은 것이며, 상의로 약간 긴듯한 저고리를 입고 있다. 바지 아래로 행전을 두르고 쥘신을 신어 떠날 채비를 단단히 한 듯하다.

옆에 있는 부인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등에는 아기를 업었다. 이채로운 것은 옷을 이용하여 아기를 업

은 모습이다. 속에 저고리를 입고 아기를 업은 후 걸  
 옷을 하나 더 걸친 것인지, 아니면 저고리로 아기를  
 업은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의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걸  
 옷을 하나 더 썩은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는 사람  
 사는 모습이, 또 모정의 지혜가 예나 지금이나 일맥상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자가 행전을 두른 것은 본 연구자료에서 이 그림이  
 유일한 것으로 치마도 아주 바짝 올려 묶어 아기 다리  
 밑으로 둥글게 드리워져 있다. 머리 또한 잘라서 다래  
 로 팔았는지 총각같이 더벅머리를 하고 있다. 이는 부  
 부 보부상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복식에 나타난 특징

##### 1. 남자복식

서민의 기본복식은 저고리와 바지이다. 직물이나 문  
 양, 색상에도 규제가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소색(素  
 色)에 민무늬의 면직물이 대부분이었다. 저고리는 벗  
 거나 앞가슴을 풀어헤친 자유스런 모습이었으며 고름  
 을 달아 여미고 동정은 달지 않았다. 저고리의 길이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짧은 길이이나 간혹 길이가 포와  
 저고리의 중간정도 되는 긴저고리를 입기도 하고 소  
 매는 대개가 걸어 입었다.

모두 저고리와 바지 차림이나 직업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 대장간에서의 서민들은 바지나  
 저고리의 소매를 길게 내려 입고 버선과 짚신을 꼭 착  
 용하여 뜨거운 쇠를 다루는 일의 위험성에 대비하였다.  
 머리에 두른 두건도 흐르는 땀을 막아주는 기능적인  
 효과와 함께 일의 위험성에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벼를 타작하는 그림에서는 저고리 소매  
 와 바지길이가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의 여름철 노동복인 쇠코 잠뱅이와 등거리 적삼을 보  
 여주는 것으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고리  
 길이는 길고 깃과 쏘이 없이 선단만을 달았으며 소매  
 는 짧거나 아예 달리지 않았다. 바지 또한 무릎 아래  
 정도로 짧고 허리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유량을 많

이 두어 꺾어 입었다.

간혹 눈에 띄는 착장법도 있었다. 저고리를 한쪽 어  
 깨만 걸치고 한 팔은 드러내놓고 입든지 허리춤에 들  
 렸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이후의 서양복식이나 현대  
 복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드물게 외투 입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양반들이 대창의 밑에 종의로 입던 소  
 창의를 서민들은 외출용으로 착용하였다.

##### 2. 여자복식

여자들의 기본복식은 치마와 저고리로 양반 부녀자  
 들의 기본복식과 다르지 않으나 옷감의 종류와 분량,  
 색상, 여러 규제 등으로 인해 무척 간소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그러나, 서민이라 할 지라도 유행의 흐름과  
 는 무관하지 않은 듯 젓가슴이 드러날 정도의 짧은 당  
 코저고리를 입고 있다. 양반부녀자들과 기녀들이 짧은  
 저고리로 인해 드러난 가슴을 가리기 위해 가리개용  
 허리띠를 하였으나 서민녀들은 하지 않고 가슴을 자  
 연스럽게 드러내놓았다.

속바지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착용하였으나 양반  
 부녀자들은 치마를 부풀리기 위한 속옷으로 서민녀들  
 은 노동을 하기 위한 활동복으로 착용하여 그 용도가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머리 또한 같은 엷은 머리 형  
 태이나 당시 가체를 이용하여 풍성하게 율렀던 양반  
 이나 기녀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머리만으로 올려 소  
 박한 모습이다.

#### V. 결론

본 논문은 조선후기 대표적 풍속화가였던 김홍도의  
 작품 중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가장 잘 보여준 풍속화  
 접에 나타난 서민의 복식을 연구하였다. 남자의 기본  
 복식은 예로부터 입어 내려오던 고유복식의 기본 구  
 조인 저고리와 바지이다. 직물이나 문양, 색상에도 규  
 제가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소색(消色)에 민무늬의  
 면직물이 대부분이었다.

대장간에서의 서민들은 바지나 저고리의 소매를 길  
 게 내려 입고 버선과 짚신을 꼭 착용하여 뜨거운 쇠를

다루는 일의 위험성에 대비하였다. 머리에 두른 두건도 흐르는 땀을 막아주는 기능적인 효과와 함께 일의 위험성에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벼를 타작하는 그림에서는 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고리 길이는 길고 깃과 셔이 없이 선단만을 달았으며 소매는 짧거나 아예 달리지 않은 여름철 노동복을 볼 수 있었다. 외의로는 소창의를 착용한 것이 간혹 있었다. 수식(首飾)은 망건(網巾)도 두르지 않은 민상투가 대부분이었다.

여자들의 기본복식은 치마와 저고리로 양반부녀자들의 기본복식과 다르지 않으나 옷감의 종류와 분량, 색상, 여러 규제 등으로 인해 무척 간소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그러나, 서민이라 할 지라도 유행의 흐름과는 무관하지 않은 듯 젓가슴이 드러날 정도의 짧은 당코저고리를 입고 있으나 가리개용 허리띠를 하지 않아 가슴이 드러났다. 머리는 엷은머리 형태이나 당시 가체를 이용하여 풍성하게 올렸던 양반이나 기녀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머리만으로 올려 소박한 모습이다.

이상과 같이 서민의 복식은 기본적인 저고리, 바지, 치마 외에 다양한 아이템이 없는 이유로 여러 복식사서적이나 문헌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복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본 연구 결과, 기본적인 복식도 인물의 직업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대장간에서는 긴바지와 저고리, 여름농사시는 활동에 편리한 짧은 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행상 나가는 처자의 복장이나 어린이 옷의 어깨 끈과 트임 같은 것이 그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복식의 연구는 옷 자체만의 구성방법이나 재료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정신이 깃든 생활속의 옷에 대한 연구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참고문헌

1. 김종태. (1989). 한국화론, 서울: 일지사, p. 198.
2. 조오순·유주리. (1999).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

- 타난 사회적 신분별 복식 연구. 창원대학 생활과 학연구소, 3.
3. 김인향·혜원. (1995). 신윤복 풍속화에 표현된 복식미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25.
4. 박경자. (1982). 한국의 복식 ; 혜원 풍속화에서 본 18세기의 일반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존협회.
5. 손경자, 임영자. (1985). 단원 김홍도의 평생도 병풍에 나타난 인물들의 복식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9.
6. 손경자, 임영자, 전해숙. (1983). 단원 김홍도의 평생도 병풍에 나타난 관모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7.
7. 한국고문서 학회. (1996). 조선시대 생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pp. 183-325.
8. 최완수 외. (1998). 우리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2, 서울: 돌베개, pp. 219-220.
9. 앞글, p. 231.
10. 앞글, p. 232.
11. 조인규 외. (1993). 조선미술사, 서울: 학민사, p. 277.
12. 한국의 미(풍속화), 서울: 중앙일보사, p. 225.
13. 백영자. (1993).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p. 196.
14. 김종태. 한국화론, pp. 208-209.
15. 유희경·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285-289.
16. 선희창. 조선의 민속, p. 69.
17. 한국의 미, p. 225.
18.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p. 246.
19. 유영자. (1982). 한국의 복식 ; 승복, 서울: 한국문화재보존협회. pp. 324-325.
20.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p. 295.
21. 윤혁길. (1990).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해학성 고찰.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4.